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4.(월) 10:00

5 분 자 유 발 언

(울산외부리축제의 '비상(飛翔)'을 위한 쓴소리)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이 선 경 의 원)

- 울산쇠부리축제의 '비상(飛翔)'을 위한 쓴소리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에 지역구를 둔 이선경 의원입니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울산쇠부리축제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달천철장과 북구청에서 이원화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성년이 된 울산쇠부리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땀 흘린 집행기관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가장 울산다운 축제라 일컬어지는
울산쇠부리축제가 지역축제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북구 ‘달천철장’에서 시작된 이천 년 철의 역사는
자동차, 조선소 등이 위치한 울산의 근간이며
울산쇠부리축제는 우리 울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올해 축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달천철장과 북구청,
두 곳으로 장소를 이원화하고 2억 원을 더 투입했지만
축제의 본질적 가치는 희석되었고 관람객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울산 옹기축제와
고래축제가 분산 개최되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울산쇠부리축제가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장소, 정체성, 철의 역사성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축제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쇠부리축제는 이천 년 철의 역사가 시작된 '달천철장'이라는 유서 깊은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울산의 대표적 무형문화재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쇠부리소리'와 쇠를 부려 토철을 뽑아내는 '제철 기술 복원실험' 등 관람객들이 직접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쇠부리의 고유한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달천철장과 북구청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북구청에 주차를 하게 하고 편리하게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먹거리 부스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달천철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문화재 용도변경 신청 혹은 주변 도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달천철장 내리막길이 있는 부분은 계단형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평소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선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울산쇠부리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북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공모전에서 쇠부리와 관련된 개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울산쇠부리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와 경주시의 사례를 보면 축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의
인구 이동 데이터, 카드사의 소비패턴 데이터 등 다양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와 축제의
경제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쇠부리'라는 소재로 축제를 여는 곳은 오직 우리 북구뿐입니다. 이천 년 철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달천철장에서 열리는 울산쇠부리축제야말로 가장 울산다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고유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제의 정체성 강화,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울산쇠부리축제를 명실상부 최고의 철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울산쇠부리축제가 새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울산쇠부리축제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으로서 북구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